

## 시장과 사회

黃柱洪\*

### 3T와 지구화 시대의 도래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세계적인 미래연구학자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자신의 문제작 「새로운 현실」에서 19세기말(1873년경)부터 20세기 중후엽까지의 세기의 특징을 '사회에 의한 구원'에 있었다고 규정지은 뒤, 그것과는 전혀 판이한 '새로운 현실'이 대략 1973년경부터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것이야말로 21세기의 두드러진 추세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드러커에 의하면 19세기말 이전 한 세기의 조류가 '자유로운 시장'이었는데, 이제 다시 그 주제가 우리들의 정책적 사고와 정치적 행동의 규범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드러커의 이 같은 세기의 현실에 관한 진단을 우리가 지지하건 반대하건,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쉐보르스키(Adam Przeworsky)의 지적대로 인류를 위한 다음 세기의 표제어가 '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 그리고 서구 문명'임은 분명해 보인다.

우리나라에도 행정 규제의 완화를 얘기하고, 약 7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공기업 민영화 구상과 사회간접자본 형성에 민간 자본 참여 방안이 추진되고, 제2 이동통신의 사업자 선정권을 전경련에게 사실상 일임해주는가 하면, 공공요금을 포함한 일반 물가까지도 시장 기능에 맡기겠다는 관계 장관의 언명도 있었다. 특정 기업집단에 대한 문민 개혁 정부의 부정적 시선이 아직도 거두어지지 않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기업집단에 대한 현정부 집권 초기의 강경 노선은 사실상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느껴진다. 며칠전 한 일간지의 보도를 보면, 대기업 소유주들은 "요즘 같으면 기업 활동을 할 맛이 난다"고 현정부의 기업집단 정책에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 누가 뭐라해도 요즘 제일 살판 난 것이 기업집단 총수들이라는 우스개 소리까지 항간에 나돌고 있다고 이 기자는 적고 있다. 정부는 '기업집단 군기'를 그래도 집권 초기에 좀 잡아 두었으니 이제 좀 풀어주는 거라고 자위하고 있을런지 모르지만, 아마도 기업집단들은 생각이 다를 것이다. "높은 양반들이 세계적 대세는 모르고 우리를 무슨 죄인 취급하더니 이제 뭘 좀 깨닫는 모양이구먼." 모르긴 몰라도 어지간한 독심과 파행의 위험 부담 각오없이 이 다음의 어떤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이제 또 다시 '사정 냉기류'를 조성한다

\* 아시아-태평양 평화재단 연구위원, 미국 미주리 대학교 정치학 박사, 서양 정치사상 전공.

거나 '기업집단 길들이기'와 같은 애초에 이길 수 없는 게임을 벌일 순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내게는 든다.

앞에 든 피터 드러커가 자신의 최신작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더이상 자본과 노동이 생산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지식인 계층이 사회의 지배 계급을 형성하게 되는 지식 사회의 출현이라는 문명사적인 대전환의 시대라고 전망하고 있긴 하지만, 전 세계적인 추세에서 살펴볼 때 교통(transport)과 정보 통신(telecommunication), 그리고 관광(tourism)의 3T를 통한 자본과 시장 메카니즘의 지구화(globalization) 현상은 이제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정치학자 사무엘 헌팅턴(Samuel Huntington)이 「외교 문제(Foreign Affairs)」라는 정책 지향의 저널을 통해 문명 충돌론(The Clash of Civilizations)을 얘기하며 학자들 사이에 분분한 의견을 낳았지만, 그것도 따지고 보면 서구적 자유 시장의 압도적 지배 우위의 동요에서 나온 가설적 추론이었다고 정리해 볼 수 있다. 헌팅턴은 향후의 국제 정치 질서를 규율하는 변수는 이제 더이상 이데올로기 따위가 아니라 문명이라고 주장한 뒤 현재의 세계 문명의 주도자인 서구 세계와 그에 저항하며 자기 길을 모색하는 비서구 세계간의 각축이 제3차 세계대전의 원인 제공자가 될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서구 문명과 유교·회교의 연대 문명간의 충돌이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 본다. 결국 그의 입장은 유교·회교 문명 사이의 제휴에 대항하여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 경제라는 서구 문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서는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정책적 권고로 이어지고 있다.

## 확대되는 시장 영역

‘시장의 전성 시대’라고 불러야 할 것인지 문예 부흥이 아닌 ‘시장 부흥’이라고 해야 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개혁 공산주의를 아직도 개인적 정치 소신으로 믿는 고르바초프조차 강연요의 수입 증대를 위해 전세계 우수 자본 시장을 누비고 있는 것을 보면 시장의 위력이 대단하긴 대단한 모양이다. 그런데 매사에는 역기능이라는 게 있고 相衡(trade-off)의 관계라는 것이 있다. 시장이 현저해지고 왕성해지면서 위축되고 쇠잔해지는 부문도 있을 것이다. 바로 사회라는 영역이다.

아주 단순화해서 논리를 개진해보자면 시장이 자본주의의 핵심이라면 사회는 사회(중심)주의의 핵심이다. 구태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20세기의 역사적 소산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적어도 그것은 17~18세기 이래의 역사 현상이다. 다만 그것들의 최정점이 20세기에 이르러 형성되었고, 그것의 명암이 또한 이 세기에 이르러 교차되고 있는 것이다. 소련과 동구의 붕괴로 인해서 시장과 사회의 긴장은 시장의 일방적 승리와 사회의 일방적 패퇴로 귀결된다. 시장의 가치와 영향력, 즉 시장의 존재 의의는 한껏 제고되고 승인된 반면, 사회가 지닌 본질적인 가치와 영향력, 즉 사회의 존재 의의는 한껏 무시되고 폄하되었다. ‘사회에 의한 구원’의 종언이 역사적으로 실

천되고 있다. 그 같은 의미에서 보자면 20세기는 「역사의 종언」(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인 셈이며 「이데올로기의 종언」(다니엘 벨)의 이데올로기의 집요한 세기인 셈이다.

본디 시장과 사회는 하나의 국가 공동체를 이루는 이원적 기능이다.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사회인이며 또한 동시에 시장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간다. 로빈슨 크루소 조차도 개와 앵무새 등과 더불어 ‘사회’를 이루며 살았고, 무릉도원을 꿈꾸었던 도연명 조차도 ‘저자 거리’를 거닐며 살았었다. 영국의 철학자 마이클 옥셱트(Michael Oakeshott)는 정치 공동체(=국가)의 중간 매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도덕적 결사체(=사회)와 타산적 결사체(=시장)라는 두 영역의 이중적 시민권을 소지하며 삶을 영위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장과 사회가 기능적으로 배타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두 개의 영역과 차원은 본질적으로 판이하다. 시장의 운영 역학이 경쟁인 반면, 사회의 그것은 협동이다. 시장의 출발점이 인간의 경제적 합리성을 기본 가정으로 하고 있는 반면, 사회의 출발점은 인간의 도덕적 이타성을 기본 가정으로 한다. 보다 광의의 의미에서의 한 사회(=국가 공동체)가 사회적 재화의 분배 원리를 찾고, 사회적 위기 관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된 것은 시장 중심적 사고와 사회 중심적 사고의 견제와 균형, 갈등과 타협간의 절묘한 변증법에 있다. 사회 중심적 사고의 과잉은 국가주의와 역할비대의 ‘큰 정부’ 옹호론에 따른 관료주의와 권위주의를 유발하게 되고, 시장 중심적 사고의 과잉은 개인주의와 역할 부재의 ‘작은

정부’ 옹호론에 따른 일종의 ‘무정부주의’와 사회 심리적 이반을 초래하게 된다. 이 둘 사이의 황금의 중간선(a golden mean)을 발견하고 추구하는 것이 모든 국가 공동체의 계명이자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아르키메데스의 중간 접점이 금세기에 들어 파괴되어버린 것이다. 소련과 동구의 몰락이 제공하는 가장 진지한 철학적 시사 바로 이것이라고 필자는 믿고 있다. 소련과 동구 체제들의 정치적 권위주의와 경제적 전체주의를 지지할 사람은 없을 것이지만, 그 체제가 전지구적 의미에서 서구의 시장 중심 또는 시장 의존주의에다 어느 정도만큼 긴장과 자기 성찰을 촉구하는 균형추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었다. 이제 그것의 의미 상실로 전일적 시장 중심 사고의 지배 관철과 그의 완료를 불안한 심기를 어찌하지 못한채 어정쩡하게 우두커니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서구 지식인들의 모습이 되어 있다. 이른바 수렴이론의 유효성 상실은 인간 지성의 탄력과 인간세계의 정중함이 지켜나가야 할 유효성을 또한 상실케하고 있는 것이다.

### 사회 공동체 의식의 쇠잔

최근 몇년 사이에 우리사회에서 일어났던 유쾌하지 못한 사건들중에서 필자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 집안에 세들어 살고 있던 이웃 세대주들이 상대방을 도둑으로 오인, 결투를 벌이다가 마침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고 말았던 일이다. ‘팔백금으로는 집을 사고, 천금으로는 이웃을 산다’고 했던 것이 우리네

사회의 오랜 풍습이자 사회 규범이었다는 데 어찌 이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생각하니 실로 어처구니가 없고 마치 내 일처럼 가슴이 아팠었다. 공동체의 위축과 타락 그리고 붕괴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았었다.

사람들 사이의 인정이 메말라 각박해지고 인심이 무척 사납고 잔혹해져서 무섭고 살벌한 세상이 되어버렸다고들 한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세상, 모두가 가상적이 되어버린 세계,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땅이 되어버렸다고 개탄한다. 많이 변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시내 버스안에서 서있는 다른 승객들의 가방을 받아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아무도 그런 케케묵은 짓을 하지 않는다. 어찌다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어 책가방을 들어주겠다고 제의한다고 해도 그 같은 비통상적인 친절에 접한 상대방이 오히려 심중팔구 의심과 경계의 눈빛으로 거절해 버리기 때문에 머쓱해지기 일쑤인 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실제 모습이다. 18세기의 대철인장 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는 자연적인 연민과 동정심이 인간의 가장 즉각적인 본성이라고 얘기하였다. 남의 입장을 자신의 처지로 바꾸어서 헤아려 볼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인간다움의 첫째 조건이라는 것이었다. 이 역지사지력(易地思之力)이 없을 때 그는 혹은 그녀는 이미 사람이기를 중지한 것이나 진배없게 되는 것이다.

시장에서 요구되는 덕목은 관심이나 이해심이나 동정심이 아니다. 시장에서 요구되는 것은 타산과 주도 면밀과 승부심이다. 왜냐하면 시장은 협동을 필요로 하는 사회와는 달리 경

쟁을 그 기저 논리로 수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쟁은 자기에 대한 배려에서 출발하는 것이지만 남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고 지속적인 경쟁은 필경 상상력의 고갈을 결과하게 된다. 미국의 민주주의 이론가인 벤자민 바아버(Benjamin Barber)는 경쟁적 물질주의의 값이 상상력의 고갈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상상력이라는 것은 바로 역지사지력과 다름없다.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논의 팝송중에 「상상해보세요(Imagine)」이라는 것이 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자는 취지의 대중 가사이다.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 나쁜 것이 많이 제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바로 이 상상력이 경쟁을 통한 상대의 제압과 제거를 일상화할 수밖에 없는 시장인들에게는 부재한 것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부재해야만 하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부채 의식(負債 意識)이라는 게 자리할 수 없다. 내가 누군가에 빚을 지고 있다는 부채 의식은 사회의 조건이자 산물이지 시장의 것은 결코 아니다. 나의 식당이 호황을 누리고 내 회사가 고속 성장을 누리는 것은 나의 능력과 조직, 자본 등 내가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경쟁력의 결과물이지 사회나 경쟁사, 그리고 고객의 협조와 협동의 결과물은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시장에서의 나는 부채 의식을 느낄 필요도 계제도 없게 된다.

### 시장에 의한 사회의 침식

시장중에도 가장 규제 부재적인 자유 시장의 사회에 대한 완승은 전체 공동체로서의 사

회를 시장화한다. 캐나다의 세계적인 정치철학자 맥퍼슨(C.B. Macpherson)은 17세기 이래 진행되어 온 사회의 시장화 경향이 20세기에 들어서서 그 최고조를 기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적인 가치와 덕목이 시장적인 가치와 덕목으로 대체되어버리는 ‘소유집착적 개인주의(possessive individualism)’를 낳게 되었다고 진단한 바 있다. 그는 사회의 시장 침투에 따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대가 지니는 인간적인 고유한 덕목 등의 인격의 무게와 향기보다는 상대가 소유하고 있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 등의 시장적 가치의 무게가 그 작동 원리가 된다고 하였다.

오늘 우리 시대의 모범상(role model)은 평화롭고 온정에 넘치는 강원도 산골의 반촌이 아니라 눈을 쉴새없이 두리번거리고 부릅떠야 하는 왁자지껄한 남대문시장이 되어 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우리가 범하는 무례와 난폭,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불친절과 뻔뻔스러움이 우리 시대의 계기판이 되어버렸다.

‘사회에 의한 구원’의 종언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이 예기찮은 ‘시장에 의한 자율 조정’의 부산물을 우리는 어떻게 정화·처리해야 할까. 개개인의 자각적 결단만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이 고가의 비용을 우리는 어떻게 지불해야 하는 것일까. 이것이 역류할 수 없는 시대와 사회의 도도한 변화 추세라 하더라도 그것이 역류되지 않으면 안될 필요가 있는 것일 때, 우리는 그것들과의 용기있는 불화 정신을 지펴올려야 한다. 자유 시장의 효율성과 자발성, 그리고 창의성과 생산성을 보존하되 그것이 뱉어내는 반사회적인 폐

해와 역기능을 과감히 처분해야 한다. 그것을 필자는 복지 지배의 완성이라고 부르고 싶다.

‘사회에 의한 구원’의 종언의 특징 두 가지는 법의 지배와 법의 최소 재배이다. 법에 따라서 지배되어지지만 법은 최소한의 지배로 그친다는 생각이 ‘시장에 의한 자율 조정’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이데올로기다. 그런데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은 사회의 복지 기능을 폐지하거나 약화시키기 마련이고, 이에 따라 사회인들은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복지를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사회 환경에 내몰리게 된다. 이웃도 사회도 정부도 국가도 다 소용없다. 내 처자식은 오로지 내가 떠맡는다하는 발상과 결의를 가져오기도 하고 부추기는 것이 바로 법의 최소 지배의 논리 체계이다. 이 세상에 나와 내 가족을 돌봐줄 놈들은 쥐뿔도 없다는 것이 바로 자유 시장 논리의 사회 윤리적 측면이다. 이런 지경에서 차선을 바꿔 들어오려는 자동차에게 관용을 베풀고, 시내 버스에서 무거운 책가방을 받아주고 말기는 호의를 전달하며, 새로 이사해 들어오는 옆방의 세입자가 입주턱을 내고, 세입자에게 축하 모임을 열어주는 친절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 새로운 지배—복지의 지배

정치의 지배 형식에서 가장 최악의 것이 사장의 지배이다. ‘짐이 국가’라고 자임하던 절대주의 시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위에 군림하였던 무법적 독재 지배의 예들은 현대에도 수두룩하다. 심지어는 지금의 문민 통치에

대해서도 ‘인치(人治)’라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다. 지난날 소련의 망명 작가여야 했던 솔제니친의 소설 「수용소 군도」에 러시아의 속담 하나가 소개된다. ‘법을 두려워말고 법관을 두려워하라’. 우리나라의 법무부장관 복무지침은 사람의 지배인 ‘법관의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이다. 미국 연방 대법원 건물의 위쪽 한 가운데에는 ‘법앞의 평등’이라는 구호가 새겨져 있다. 인위적이고 임의적인 사람의 지배로부터 빨리 그리고 멀리 이탈해 있을수록 그 공동체는 안정적이게 된다. 그렇지만 법의 지배가 최상일 순 없다. 더구나 ‘사회에 의한 구원’의 종언 논리 체계하에서의 법의 지배는 법의 최소 지배론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것은 다시 사람의 지배 논리로 환원되어버릴 수 있는 공산이 매우 농후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지배론이 지니는 위험성 역시 매우 농후하게 재현될 공산 또한 매우 농후하게 된다.

복지의 지배론의 요체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당신이 어려울 때 당신곁에 이웃이 있고, 사회가 있고, 공동체가 있고, 정부가 있고, 국가가 있다는 생각인 것이다. 기가 막힌 화음의 남성 듀엣 사이몬과 가펩클의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A Bridge over Troubled Water)가 있다. 당신이 세상에서 패배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내가 당신곁에서 당신눈의 눈물을 마르게 하고 위로해 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복지 지배의 완성은 바로 그런 것이다. 형식적 민주주의가 실질적 민주주의로 완성되는 것이 또한 이 복지 지배를 통해서이다.

시장이 사회를 침식하여 사람들 사이에 협동의 마음이 사라지고 무한 경쟁의 심리가 팽배할 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정책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무기가 복지의 지배론이다. 인생이 시장 바닥으로 전락해버리도록 놔둘 순 없을진대 우리에게 인생은 승부가 아니라 완성이라는 새로운 가치관을 실질적으로 확립해주는 유일한 계기가 바로 그것이라는 말이다. 대세와 추세와 조류라고 하여 반드시 정당한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그것에의 완강한 역류와 저항이 더 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인생은 결국 매우 오묘한 것이기 때문이다. ♣